

1. 회복 운동:

a. 하나님의 성품(형상)의 회복-하나님의 마음의 회복-Spirit of compassion

- (1) 우선 ‘외식’ 하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함(2-5 절)
  - 명에 매우는 죄-죄책감, 부담을 주는 삶
  - 손가락질하는 죄-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삶, 홍보는 삶
  - 허망한 말을 하는 죄 -자랑하는 말, 잡담, 세상의 헛된 꿈
- (2) 주신 자유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삶(6 절-7 절)
  -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 5 장 13 절
  - 행위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돌보는 삶(10 절)
- (3) 주신 자유로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는 삶(7 절)

b. 하나님의 성품(형상)의 반영

- (1) ‘하나님을 아는 빛’ 을 반영하는 삶(8 절)
- (2) 급속한 치유를 체험하는 삶
- (3)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
- (4)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
- (5) 빛과 의, 치유, 영광으로 점철되는 삶의 내용(10 절)

c. 성품의 회복과 함께 오는 축복들

- (1) 기도의 응답(9 절)
- (2) 삶의 어두움이 제거됨(10 절)
- (3) 영혼의 차고 넘치는 만족을 체험함(11 절)
- (4) 건강의 회복(11 절)
- (5) 우리 자녀들이 이웃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참여함(12 절)

2. 안식일의 회복

- a. 사람을 부리고 짓밟고 마구 대하는 오락을 금하라!(인고기잔치하는 오락, 홍보는 오락, 없신 여기는 오락, 우쭐대는 오락, 스스로 자학하는 오락)
- b. 죄악된 본성이 충동하는데로 말하고 따라가는 삶을 금하라!
- c. 그대신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돌보라! 나누어 주라!  
마음으로 봉사하라!
- d. 안식일의 회복과 함께 오는 축복들:

- (1) 주님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회복됨-관계의 회복-친밀한 관계가 주는 즐거움 회복
- (2) 궁극적 높이 들리움을 받는(존경 받는) 삶을 살게 됨
- (3) 영육의 축복을 누리게 됨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율법의 회복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벽이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들을 순결하게 지켜주는 영원한 방어벽이 된다(Pk 677.3)

- 롬 12:1
- 벰 후 1:4
- 잠언 4:20-22

십계명의 모든 세부사항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 준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다.

- 이사야 58:7,8:
- 막 2:28
- 사 58:13
- 마 5:17-19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력과 구속력을 상징한다.

이사야 58:12-14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과 연결되어졌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쉼과 구원을 기념하는 쉼이 종합되는 날이다. 바로 이런 영적인 쉼이 안식일의 주인(마 12:8 절)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또한 이런 영적인 쉼이 교만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와 겸손의 자리로 가게되고, 또한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찬 마음이 사랑과 동정, 더 베풀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될 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기별이 가르쳐 준다.

또한 무아적인 마음으로, 나누려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안식일의 기별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들은 결코 필요가 등한시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사 58:11,12; 잠언 7:2; 이사야 58:14)

\*광야의 신학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첫번째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결심해야 한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그대가 받은 모든 빛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

참 안식일을 회복하려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다.

-고후 4:17 절

-회 11:26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인간을 이기심이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구속의 능력, 재 창조의 능력으로 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쉼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고 하리라.”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원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개혁의 사역이 이루어져 왔다.